

제 40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2. 12. 21(금), 15: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이순일 의원, 이효철 의원, 임정민 의원, 이홍평 의원, 김진우 의원, 윤갑희 의원, 이강준 의원 (총 13명 중 8명 참석)
- 불참 : 조중열 의원, 이재호 의원, 윤성승 의원, 강희진 의원, 박윤규 의원

의장 강명구 : 13명 중 8분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이 4개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봐야할 것이 2차 추경 자문이고 학칙 심의가 있습니다. 기타 논의사항에 펀드투자 결과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보완 요구 건이 하나있고 32대 학생회장 진정 건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등심위하고 날이 겹칩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하려고 하다가 성원이 되지 않아서 금요일로 옮겼는데 등심위와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속도를 내서 심의를 해줘야 등심위가 4시30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논의한 결과 펀드투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기획처장님과 얘기하고 추경하고 그 다음에 학칙심의, 학생회장 진정 건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난번 회의에서 본예산과 추경예산별 심의 일자를 못 박았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일정 변경의 전후사정과 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회의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이번 회의가 원래 오늘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렸어야 했던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경되었는지 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 과정은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죠. 문서가 많이 왔다가고 제

< 간서명란 >

의 장



- 1 -

무회계규칙 때문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서류를 대해서 원래 지난주
금요일 하려던 것이 안 되어서 월요일로 옮겼다가 안 되어서 오늘로 옮겼습
니다. 하여간 이순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의원 이순일 : 재무회계규칙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에 근거해서 날짜를
바꾸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명구 : 이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1년 동안 스케줄이
미리 정해져있어야 시간을 잡고 모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12월
몇 째 금요일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미리 연락드리고요.

평의원 이순일 : 오늘 회의도 예정대로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했으면 의
원들께서 일정을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다들 출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당기자고 하니가 성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당기자고 한 날에 막상 당겨놓
고 보니까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런 혼란을 없애자고 날짜를 못 박은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 회의와 조정을 하다보니
가 이렇게 되었는데 평의원회는 여러분이 모이시기 때문에 날짜 맞추기 힘
든 것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법인 이사회에서 소집하실 적에 평의원회 회의
가 미리 set-up 되어 있으면 그에 맞추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획처장, 예산팀장 입장)

기획처장 김민구 : 안녕하세요.

의장 강명구 : (평의원회 회의 일정을 년 간 단위로 확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장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일정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형태로 견해 표명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바탕
하에 연간 회의 일정을 미리 확정할 것을 주장함) 지난번 펀드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첨부 문건으로 드린 바와 같이 총장님 명의 서신
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제 개인의

< 간서명 란 >

의 장



- 2

의견이 아니라 46차 교수회 대의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제가 대신 논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총장 담화문 발표 이전 교수회 앞으로 총장서신에 답을 내용을 가안(假案)으로 보내주셔서 교수회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표 담화문을 보면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깨끗하게 푸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해보겠습니다. 담화문을 보시면 첫 페이지에 “금번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교수회와 대학 본부가 합의하여 작성한”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서는 조사결과 당시 학교의 펀드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추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2008년도 ELS 확정손실 건에 대해서 교수회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본부가 확실히 시인해주기를 바라는데 애들러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시인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써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펀드사태에 대한 역사적 기록 혹은 백서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교수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백서라는 것은 교수회와 본부가 합의해서 발간한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대학 본부가 결과보고서에 대응하는 형식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무엇 무엇을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백서였는데 총장담화는 본부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반응하는 백서를 발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페이지 넘어가서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펀드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현황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엑셀작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것에 대해서는 엑셀작업 안 하고 앞으로는 엑셀작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고서가 의도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펀드투자 및 손실의 은폐처리 관련 자들에 대하여 학교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하여 작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펀드투자 관련자에 대해서는 매우 불충분하지만 대충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ELS 확정손실 은폐 건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했는지 또 어떠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전혀 밝혀

< 간서명 란 >

의 장



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양자가 같이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처장님께 답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글도 총장님 서신이고 글도 관련 부서장인 총무처장님께서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은 드릴 수 없고 이것에 대한 것들은 총장님께 직접 물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평의원회 보다는 사실은 교수회에 가까운 안전이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같이 해서 총장님이나 직접 주무부서장과 만나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 다시 한 번 회동이 필요하지 않을까하여 의장님과 총장님이 말씀을 나누셔서 직접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전하다 보니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직접 당사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간에 입장이 되면 총무인 임석철 교수님과 저하고 중간에 하다 보니 곤욕스럽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도 같은 맥락에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해서 문제를 서로 소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처장님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도 대학구성원들에게 다 전해진 총장 서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기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의원회 의제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문제가 처음 발견된 것도 이 자리에서 예산 자문을 하면서 발견된 것이고 총장과 교수회 의장께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처음 그 사실을 공개한 것도 대학평의원회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구성원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장 서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거나 총장 서신이 사실이 아닌 것을 담고 있거나. 의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총장 서신에 있는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란 말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처장님도 아시는 것 아닙니까?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 자료에 처장님도 참석을 하

< 간서명 란 >

의 장



- 4 -

셨고, 그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보고서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총장과 교수회 의장 양 쪽의 합의에 의한 위촉을 받아서 조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자체가 독립적이고 양 쪽의 합의에 의한 권위를 가지고 근거에 기초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면 보고서 자체가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우선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백서라는 것은...

기획처장 김민구 :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평의원 이순일 : 다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의장님 얘기와 같은데..

평의원 이순일 : 의장님은 교수회 의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획처장 김민구 :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논의사항으로 공지가 되어서 평의원회 논의사항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의장 강명구 :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처장 김민구 : 이게 교수회의 일 가지고... 이것은 제가 대답할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문제도 총장님과 총무처장님께 얘기를 하세요.

의장 강명구 : 이것을 긴급안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월요일에 교수회 대의원회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당연히 긴급안건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학생 선거관련도 똑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듣는 것은 좋은데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지난번에 교수회에서 결과보고 할 적에 기획처장님이 나오셔서 백서를 발간해서 깨끗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하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몇 사람에게 확인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도 총장님이 못 오셔서 제가 총장님을 대신해서 총장님께 전해드린 거고요. 직접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발언권이 안 끝났으면 말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백서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발표회 자리에서 두 분 처장님께서 학교를 대표해서

< 간서명 란 >


의 장



참석하셔서 직접 언명하신 겁니다. 학교가 학기말까지는 백서 수준의 답변을 낼 것이라고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서한의 표현을 보면 그게 아니라 보고서로 대체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하신 당사자인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엑셀작업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우리학교의 자금 집행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엑셀 화 하시는 것이 펀드투자 건에 대한 마무리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명기해두었습니다. 이것은 대학본부에서 선임하신 두 분 위원도 동의하셔서 만장일치로 결론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도 표현되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서한에 ‘현황 및 평가’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펀드에 대한 것이지, 과연 2001년부터의 펀드투자 내역을 엑셀 자료화 하실 거라는 의지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공동어 만든 보고서에서 공식적인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을 거부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거부하실 거면 거부하신다고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교수회입장과 같다 하셨는데 조사위원들은 교수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수회의 의견이니까 교수회에서 총장에게 물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고서의 내용은 교수회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장서한에 ‘펀드투자 및 손실의 은폐처리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징계절차’ 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징계를 건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펀드투자 및 손실의 회계처리 등의 위법 행위에 관계된 해당자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동료 교수들을 처벌하는 것을 요청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게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입장을 표명해 주십사 하는 것만 요청드렸습니다. 교수회는 처벌을 요구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사위원회는 그것과 분명히 구별된 별도의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한 번도 처벌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입장 표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총무님한테 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서...

평의원 이순일 : 총무님은 저한테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조사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우리가 총장님의 글을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피드백을 받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때 요구하신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글이나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순일 교수가 아무리 하나의 뜻으로 얘기를 하셔도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듣게 되어있는 겁니다. 원래 자연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학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까지 논의하면 이게 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장 강명구 : 여기서 논의를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너무 디테일해서 다른 의원분들에게는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정확히 아는 분과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백서라는 것도 총무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총장님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다르세요. 내가 전하다 보니까 이해를 다르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수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교수회 혼자 했다는 것은 아닐 거고요. 해석의 차이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교수회와 본부가 위원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후에 백서가 나갈 것이라고 총장님이나 총무처장은 expect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것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될 시간도 없고 백서를 만들 것 같지도 않다. 총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서로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봐야 또 가서 제가 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의장 강명구 : 기획처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문제의 본질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주무 부처인) 총무처장님 오셔야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추경 및 2013년도 예산 자문 힘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하신 것이 어제 논의사항으로 하고 총무처장 오라고하고 다 오라고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우를 얘기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추경은 통과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의장 강명구 :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논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요구 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백서를 내고 명시된 문건으로 1월 18일 회의 전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일주일도 아니라 2~3일이면 충분히 합니다. 투자에 대한 엑셀 작업 어렵지 않습니다. 성의를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2008년도 ELS 확정손실 전은 그 당시 전결 책임자가 누구였고 누가 결정했고 따라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 확인만 하면 되는데 힘드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저희가 2013학년도 예산 자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수회 신문 <탁류청론> 기사에 나와 있듯이 왜 이렇게 깨끗이 매듭을 못 짓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실관계를 확실히 적어놓고 그것을 매듭짓고 앞으로 나가자는 것인데 자꾸 양파 까듯이 문제를 미진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획처장님께서 저희가 지적했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2013년 1월 중순 예산 자문 전까지 확답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고 확답을 안주시면 추경 자문 못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확답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앞으로 진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본부의 협조 하에 4분 위원 분들이 무진 고생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 결과물을 총장 서신 2페이지로 끝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식으로 다른 문제와 함께 거론하며 희석시켜서... 몇 번이나 펀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매듭짓는 백서를 주십시오. 끝내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밍기적 밍기적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이... 백서내주겠다고 해 놓고 나서 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백서 뜻이 여러

< 간서명 란 >

의 장



8-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회의를 하는지...

기획처장 김민구 : 죄송합니다. 총장님과 총무처장님이 이해하신 백서는 이 위원회에서 백서를 만드신다고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백서 안 만듭니다. 지금 생각 하시는 것은 백서를 학교가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장님과 총무처장님은... 총무처장이 이 위원회를 같이 의논해서 만드셔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백서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보기엔 누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교수회 총무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도 종강 전까지 총장님 담화문 형식으로 편지를 내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백서라고 이해해서 백서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백서라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 차이가 있었고요. 제가 백서란 말을 했다고 해서 녹음은 안 들어 봤지만 했겠죠. 이순일 교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백서 급의 글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의 의도는 총장님이 담화문을 내신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들은 것은 백서는 총장님과 총무처장님은 백서를 발간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종강할 때까지 총장님이 아무 말도 안 쓰고 나면 또 약속 안 지켰다고 그럴 것 아니겠냐 그래서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서로 오해가 있어서 서로 전해지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만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의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나보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 권한 밖이고요. 저는 충분히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5가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직접 얘기를 안 하시면 전달이 안 됩니다.

의장 강명구 : 잠깐만요. 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뇨. 직접 만나셔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의장 강명구 : 물론 만나서 교수회 대의원회 결과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10월 31일 대의원회 끝나고 오후 2시쯤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뵈고서 메모를 드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들었고 서로 해석이 틀릴게 하나도 없습니다. 총장 서신 가(안)이 왔을 때 또 다시 정확히 프린트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적에 기획처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은 해석

< 간서명 란 >

의 장



의 차이랄까 오래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적은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발언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백서 얘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마 임정민 의원도 발표회장에 있었을 텐데, 저는 백서라는 표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백서라는 표현은 처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쓰신 겁니다. 백서 혹은 백서 급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대학구성원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데 처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백서 급 답변이 나올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거기 참석했던 분들에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더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두 건이 연계되어있다고 생각 하는가 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의도적 회계자료의 왜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하자고 하는 일이 무엇이나 하면 추경 자문입니다. 추경 자문을 하려면 예산서가(재무제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런 자문회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 위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제공되는 회계자료가 정확해야 등록금심의회를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학교의 회계자료에는 왜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왜곡이 없을 거라는 것이 확약이 되어야, 또 어떤 식으로 회계 왜곡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저희가 자문을 하는 것이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례에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반드시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백서와 관계되어서 요청 드린 엑셀파일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들이 4월부터 거의 7개월 동안 노력을 했지만,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임의로 조사기간을 2005년 이후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펀드 자료를 볼 때, 이미 그 전부터 펀드를 사고 팔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만한 기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자료 왜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무한정 갈 수는 없고 어느 시점 이를테면 최소한도 2001년부터는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 과연 어느 정도 재정적인 손실이

< 간서명 란 >

의 장



있었고 회계 왜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보고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본교의 회계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예산 자문도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일을 논의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의장 강명구 : 말씀하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물론 이순일 교수님 얘기가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관계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관계가 있죠. 다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트러스트의 문제라고 보고요. 트러스트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안 하셨겠죠. 트러스트가 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예산을 짠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작년 결산이나 이런데도 문제가 있었나... 예를 들어서 2000년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결산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나요? 만약에 그때 자료에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까지 연결하면... 연결은 있죠. 세상에 연결이 없을 수가 있나요. 있지만 작년 결산이나 이런 데에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결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죠.

평의원 이순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공인회계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 분 공인회계사가 참여 하셨고 오늘 이 자리는 참석안하셨지만 평의원 중에도 공인회계사가 계십니다. 그 분들이 지적하신 아주 심각한 내용 중의 하나는 펀드 손실이 난 경우에 예산을 짤 때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손실이 나서 못 쓸 돈이라면 그게 예산상에 명기해야 되는 것이 통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이라는 것이 공인회계사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 예산 작성에는 그게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인데요. 사실은 다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순일 교수님 의견이나...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제 의견이 아니라 공통된 의사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도 어차피 통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봉희 교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같이 와서 들으면...

평의원 이순일 : 처장님. 보고서는 만장일치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보고서는 만장일치지만 보고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그날 이순일 교수님이 해석해서 말씀하신 것과 한봉희 교수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라서 그런 문제를 여기서... 더군다나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하면 이게 토론이 잘 될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장 강명구 : 하여간 추정하고 예산자문. 펀드결과 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총장님하고 만나서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이신데 제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고생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한 번 더 본부 측에서 깨끗하게 매듭짓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희미하게 하시는 것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요. 오늘도 명석을 다 깔아드렸는데 백서라고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누구누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등 등의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렇다고 확인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사실관계하고 다른 얘기들만 하시니까 맥이 빠집니다. 언제 확정 손실건에 대해 처리하고 엄중히 징계절차를 진행했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펀드관련이라든가 물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총무처이지만 총장님과 계단 다 관련 있죠. 예산 관련해서 전부다 관련 있습니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또 여러 교수들의 견해를 듣고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자문하고 예산 자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 견해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제가 어떻게 방향성 이런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평의회는 의장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데 오늘 추정이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 간서명 란 >

의 장



- 12

의장 강명구 : 오늘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아니고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평의원회 자문을 못 받은 것으로 되죠.

의장 강명구 : 자문을 못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결과는 없지만 저희도 자문을 받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문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의료원이 자문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자문 안하면 같은 형태가 될 텐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항상 양쪽은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시거든요. 내가 또 저쪽 가서 듣고 있으면 저쪽이 옳다고 그러세요. 똑같이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의견의 차라고 보지 어디가 절대 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문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서 가급적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견해차라고 하시는데 견해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는 저희가 총장님께 메모를 한번 드렸고... 이게 벌써 3번째 드린 건데 이와 같은 사실들은... 견해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 해주십사 그런 것이거든요. 견해차가 아닙니다.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이죠. 어떻게 할까요?

평의원 임정민 :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긴급 안전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원인 같은 것을 이메일로 발송하실 때 첨부를 딱히 해주신 부분이 없어가지고...

의장 강명구 : 했지요.

평의원 임정민 : 이런 자료 같은 것을 스캔해서 보내주신 부분이 아니라서 와서 처음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과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편하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적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먼저 하고 나서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평의원 이순일 : 시간을 정리하자면 총장서신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 김승권 : 14일(금)에 나왔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14일(금) 오후니까 시간이 안 되었고 대의원회 하신 게 언제죠?

의장 강명구 : 월요일 날...

평의원 이순일 : 월요일 날에 대의원회 그리고 나서 화요일 하루 있고 선거 있고... 그러니까 긴급 안전을 통보할 시간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평의원 임정민 :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체크 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논의 하는 것보다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논의하셨으면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교에 조금 더 빨리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런 사실은 학교 토탈공지에 다 뺐고 첨부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하여 안전으로 상정했는데 ... 이게 저희가 여기에 논의 안하면 논의할 틈이 없었습니다. 담화문이 12월 14일 지난 금요일에 왔고, 저희가 교수총회를 다음 주 월요일에 했고 화요일 하루 지나고 수요일 선거였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홍평 : 시간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 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야 하는데 의지가 안보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처장님, 저도 참 많이 괴로운 게 학교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것 매듭짓고 가고 싶은 마음, 회의를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 복잡하거든요. 이 발언을 하기 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번 쯤은 제가 꼭 쯤 매듭을 짓고 싶어요. 지난번에 박종구 전 직무대행 조사 보고 건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총장님께서 그것을 발표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도 계속 발표 안 해주셔서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따로 해결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여러 번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한번은 꼭 쯤 매듭을 짓고 나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자문을 안 해주셔도 18일에 본예산하고 같이 자문을 해주셔도 된

< 간서명 란 >

의 장



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총장님과 총무처장 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총무처장하고 총장님하고 같이 하고 저도 물론 배석하고요.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건지 의장님하고 여기 대표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건지는 알려주시면... 1월 18일에 평의원회 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의장 강명구 : 1월 18일은 2013년 예산 자문이죠.

기획처장 김민구 : 그때 같이 할 수 있다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18일까지 예산 자문을 할 때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 사이에 회동을 해서, 지금 얘기를 자꾸만 전해주다 보니 문제가 있으니 직접 해서 하면 간격을 좁히고 답답함과 왜 안 되나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18일에 두 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의장 강명구 : 자꾸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 하시는데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총장님하고 실제로 어떤 결론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얘기들은 정확한 문서를 통해서 근거규정이 있게 문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틀림없이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록에 펀드투자 후속 조치 건으로 해서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8일에 예산 자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이 교과부에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의원 이순일 : 그럼 제가 한 가지 수정안을 내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실 테니까 1월 18일까지 하시되, 원래 저희가 2차 추경 자문을 오늘 하자고 한 이유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몇 가지는 뚜렷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여기서 완결 짓지는 않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한 두 가지, 그것은 제가 미리 전화로 자료를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4시 반에 학생위원들 떠나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의장 강명구 : 이순일 교수님 전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2차 추

< 간서명 란 >

의 장



경에 관해 부분적으로 논의하고 등심위원들 와서 전해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월 18일에 한다. 다만 전제조건은 그 전까지 이와 같은 요구조건들이 만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건을 달으신 거죠? 맞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요구조건이라는 것을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고 총장님하고 총무처장하고 같이 만나는 것을 안 만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 보냈으니 알아서 답을 하라 그렇게 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보다는, 문서가 물론 정확한 증거가 되지만 항상 글 내에 모든 뜻이 다 담겨있지는 않거든요. 정확한 것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 이해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위하는 마음이 서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장님하고 총무처장하고 또 이순일 교수를 비롯한 몇 분 대표를 하시든 해서 회동을 한번 하시든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문서로도 하시고 만나서 끝장토론을 하시든 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이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문서로만 하면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명구 :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회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학본부에서 교수회 의장이나 평의원회 의장에게 이와 같이 설명한다 부탁한다며 회동하자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찌다가 미리 말씀 안 드리고 간접 한번 정도 있습니다만 제가 쪽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그 때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질의 했었습니다. 한 번도 총장께서 먼저 만나자고 전화 받은 적은 없다고 사실관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일 교수님이 수정제안하신 것 중에서 이왕 만났으니까 등심위도 있고 하니까 관련 사항만 부분적으로 논의하고 2012년도 2차 추경(안)은 2013년 1월 18일에 2013년 예산 자문할 때 같이하면 어떨겠느냐. 다만 그 전까지 이런 펀드투자에 관한 요구조건들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평의원 김진우 : 좋은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팀장님, 아까 부탁드린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 간서명란 >

의 장



예산팀장 조정숙 : 네, 지금 몇 부 안 가져와서 copy하러 갔는데요.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저희가 2012년도 추경 관련해서 등심위 관련 학생들 오라고 할까요?

기획팀 이수영 : 의장님, 학생들하고는 4시 20분에 약속이 되어있는데요.

의장 강명구 : 그럼 저희가 먼저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안건들 보니까 저는 미리 공부를 해서 추경 예산 수입하고 지출에 관해 자세히 파악했는데... 이순일 교수님, 왜 법정전입금 문제하고 재정개선계획서 제출여부하고 연관이 되어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등록금 심의위원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예산 자문할 때 크게 논란이 된 것은 법정부담금입니다. 그 액수가 66억 정도 되는데, 66억이면 학부등록금 대비 9%되는 큰 액수입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던 문제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면 재정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그 재정개선계획서를 낼 때 보면 자율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대학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가 두 군데인데 하나가 등록금심의위원회고 하나가 대학평의회입니다. 지난번에는 등록금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동의를 해버리면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부담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과연 그렇게 합의할 만한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의회도 다음번 회의를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계되어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사안인데, 법이 바뀐 시점 때문에 2012년 2월 법정부담금은 교비로 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그 해에는 재정개선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학교에 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팀장께서는 이해가 달라서 안 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을 보전해야 합니다. 과연 그게 보전되었는지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요청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등록금 심의를 하시게 되면

< 간서명 란 >

의 장



- 17 -

2012년 2월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한 것이 있는데 재단이 과연 그것을 다시 돌려줬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지켰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에 관해 제가 아까 예산팀장께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습니다. 2012학년도 법정전입금이 들어왔느냐? 이 시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년에도 2월 중순에서 말에 들어왔으니 이번에도 그 때 들어올 것이라 합니다. 신의를 가지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구두약속을 믿고서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요청을 드렸느냐면 '재단의 형편상 2월 중순이나 말에 주실 수도 있다. 단, 그렇다면 그때 낸다는 약속을 내부결제 문서로라도 받아 달라' 했더니 구두 약속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문서를 안 받고서 2012학년도 법정부담금을 완납할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학교에서 결산 끝나고 나서 조정이라고 해서 본교와 병원에서 들어왔던 돈을 없던 걸로 한 적이 있습니다. 대우 기부금과 관련된 건입니다. 제가 그 신문기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100억, 학교 78억 대우에서 기부 받아서 학교 부채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되살아난 것을 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하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구두 약속에 근거해서 많은 학생들에 대한 신의를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명구 : 자료주신 현황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예산팀장 조정숙 : 2012학년도 2차 추경까지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들어왔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입금은 아직 안되었지만 2월 이전에 입금이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문서가 있나요?

예산팀장 조정숙 : 문서는 없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2012년 2월 전입금 미납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다달이 내던 것을 1년 통으로 내는 겁니까?

평의원 이순일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바뀐 시점 이후에 남아있던 달이 2월입니다. 그때도 2월분을 교비로 대납했다면 재정개선계획서에 의하면 다

< 간서명란 >

의 장



시 학교에 환납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서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평의원 임정민 : 재정개선계획서가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평의원 이순일 : 네 그렇죠.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조팀장님하고 이순일 교수님 얘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받으신 것처럼 법정부담액에 사학연금 쪽으로 보면 100%를 내서... 아직 안냈지만, 100%를 낸다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아직 낸다는 문서를 못 받았으니 그걸 믿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문서로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법인의 결정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됐습니다. 만약 다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어떻게 알거나, 그것은 판단을 하시고요. 작년 것은 의견이 다르니까 그것은 좀 클리어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줄 건지 안 줄 건지 믿을 것이냐, 또 문서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법인에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의견이 다르시고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 핑계 대십시오. 저희 핑계대고 문서 달라고 하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교비부담금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을 교비로 내는 게 당연합니까? 사립학교법을 한번 찾아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16억도 사실은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담할 형편이 안 되면 교비로 대납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학연금은 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 법을 바꿔서 이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법정부담금 중 나머지 4개는 빠져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교비로 대납한 것이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고, 그리고 당장은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교비로라도 대납을 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걸 받아들이실 건지, 그것도 등록금 심의를 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법인에다가 16억을 보전해라, 이번에 보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재

< 간서명 란 >

의 장


- 19 -

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십시오. 법인이 적립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네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내지 않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의장 강명구 : 그리고 낼 돈이 없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재산이 이와 같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재정개선계획서를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설명해주시면 앞으로 분명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21억9천만원 안 들어온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한 실제로 여태까지 아무 근거 조항 없이 교비로 부담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국립대학 기성회비와 똑같이 아무 근거 없이 걷어왔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재정개선계획서를 낼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실효성이 없었던 게 저희가 예산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한다라고 넘어갔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다 내겠다고 문서로 약속하지 않으면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자문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권한을 가진 기구가 등록금심의위원회입니다. 이번에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회의가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것으로 사전 심의 받은 걸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자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21억9천만에 대해서 문서로서 법인이 저희에게 완납을 약속해주시든지 아니면 조만간 입금해주시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싫으시면 재정개선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상임이사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문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희가 1월 18일에 2013학년도 본예산 자문을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기획팀 이수영 : 네

< 간서명 란 >

의 장



20-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나면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는겁니다. 말하시는 것은 쉽지만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도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의장 강명구 :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처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의 애로점을 말씀드려요. 저희도 요청은 하지만 안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자문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저희도 설득을 하지만 자문 받지 말고 가자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중간입장에서 가능하면 자문 받고 싶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장 강명구 : 그러니까 저희 얘기를 하십시오. 모든 논리상의 허점은 재단에 있습니다. 와서 재정개선계획서를 내시고 설명하여 주시든지 돈을 내주시든지 둘 다 못하시면 저희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문제를 쟁점화 시켜서 교과부에 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간단합니다. 오셔서 재정개선계획서를 보여주시든지 돈 내시든지 아니면 고발당하시든지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 2월말까지 돈 냈으면 교과부에서도 돈을 냈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법원에서 돈을 안냈다 하면 그것은 위법이라 문제가 될 텐데...

평의원 이순일 : 조금 다릅니다. 2월까지 내시면 2012학년도 것을 내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2012학년도 것을 내시지만 문서로 약속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 뜻은 알지만...

평의원 이순일 :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체에서 승인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은 다릅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본예산 자문이 있었기에 사전심의를 안 받고 그걸로 대체 한다고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본예산 심의에서 동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 간서명 란 >

의 장

 - 21 -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한번 솔루션을 얘기해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저도 솔루션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쭙보려고 했습니다.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저희한테는 어렵다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중간에서는 전혀 어려우실 게 없어요.

기획처장 김민구 :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문을 못 받으니 어렵다는 거죠.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대학평의원회 입장은 얼마나 어려운가 처장님이 이해해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똑같은 입장인데 결국 그러면...

의장 강명구 :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재단이 고민해야지 왜 기획처장님이 고민하십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현실은 또 그게 다릅니다.

의장 강명구 : 재단이 고민해야지 왜 처장님이 고민하십니까?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이 법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는 거죠.

예산팀장 조정숙 : 의장님, 재단은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전까지 입금 시키면 법인은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러니까 문서 한 장 써주면 되지요. 확실하니까... 문서 써주는 게 왜 안 됩니까? 저희도 믿을 수 있어야지 1월 18일에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하나 문서 주시면... 대학평의원회 의장 앞으로 다음과 같이 아주대학교 법인은 얼마 얼마를 확실히 입금하겠다 안할 경우에는 책임지겠다 한 장 써주시면 됩니다. 입금하고 없애면 되는데 뭐가 문제 입니까? 논리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세상일이 다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의장 강명구 : 그러면 논리적이지 않은 분도 논리적으로 되어야죠.

기획처장 김민구 : 물론 의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사장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이사장님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들어보면 그 분도 논리는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가운데 껴서...

의장 강명구 : 재단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장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22 -

평의원 이순일 : 21억을 빨리 입금해 주시면 이자 수익도 아주대에 남을 텐데 왜 그렇게 마지막 날 주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거야 돈 주는 사람마음이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다시 말하면 그 21억을 다달이 내야하기 때문에 학교가 대납하면 학교는 그것만큼 선이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정확합니다. 아니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와 같이 돈 낼 형편이 못 된다 하는 재정개선계획서를 내십시오. 그리고 상임이사가 설명하십시오.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의장님은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어려울 게 있나보죠.

의장 강명구 : 아니, 뭐가 어려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돈 없으면 와서 설명하면 되고 돈 있으면 내면 되고, 그거 아닙니까? 4시 20분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오시기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평의원 이순일 : 팀장님, 이 사학연금 어떻게 납부합니까? 다달이 납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납부합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학교에서는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하여간 저희는 21억을 먼저내고 말일에 돌려 받는 거죠?

예산팀장 조정숙 : 네, 년도 말에 지원 받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음번에는 선이자 손실도 한번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는 가도 됩니까? 있어야 하나요?

의장 강명구 : 기획처장님은 어차피 등심위를 아시니까...

평의원회 임정민 : 추경에서 저희들 질문할 것은 그러면은?

의장 강명구 : 1월 18일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평의원 이순일 : 아니면 지금 등심위에 뭐 물어보고 전달할 게 있으면...

의장 강명구 : 잠깐 앉아계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평의원 임정민 :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난 11월 22일에 기획처에서 연구력 강화를 위한 방안 하셨습니다. 이번 자료 14페이지 7번 항목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수용을 한 것 인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수용을 한다는 표현은 조금 아니고요. 우리가 연구력 강

< 간서명란 >

의 장

 23 -

화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 들씩 크게 문제가 없는것부터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나 하면, 인문사회계 쪽에 국내저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교내연구비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또 한 가지는 교내연구비도 인문계 쪽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지표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억 정도를 내서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 그 분들이 다 하실 거라 예상하지는 않고 해서 한 2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50%밖에 예산이 안 되지만...

평의원 임정민 : 원래 인건비 항목으로 잡으셨던 항목이 아닌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K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한편을 쓰면 편당 350만원을 주고 있어요. K대학교가 지표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방법은 예전에도 우리도 조금 썼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교수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좋지 않은데, 우리 학교가 교내연구비가 낮기 때문에 비상처방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문사회계 쪽이 낮아서 먼저 올해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평의원 임정민 : 올해 인문사회계열 하고 내년에 자연과학계열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느니 내년에 한꺼번에 연구비를 증진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연구비 지표는 2월말까지이고, 연구실적은 12월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중앙일보 나오는 지표는 예산은 내년 2월말이면 마감되고요, 연구실적은 올해 12월 말이면 마감됩니다. 우리가 영점 몇 점으로 16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지표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의원 임정민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비비 편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겁니다. 차라리 연구비 항목에 추가적으로 했으면 했지 예비비 사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2010년, 2011년 자료를 봤는데 교수 당 자체연구비가 그때는 16위, 15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9위 했고요.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기획처에서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이지 이렇게 예비비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24 -

기획처장 김민구 : 지표 산출 방법이 바뀌어서 계열별로 해서 평균을 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하고 교수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했는데 지금은 계열별로 해서... 중앙일보 평가가 20년이 넘어가면서 모든 대학이 관심을 갖고 모든 대학이 변경을 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서 우리학교에 이롭게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가 연구비가 나쁘다하면 각 계열마다 평균을 해서 4로 나눕니다. 과거에는 다 더해서 교수수로 나눴었거든요. 우리가 이 공계 쪽은 좋아요. 갑자기 산출방법이 바뀌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그러면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 액수로는 그렇죠.

평의원 임정민 : 그런데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 게재 논문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제작년에 26위, 작년에 22위였는데 올해 65위가 되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도 역시 계산방법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이공계였기에 SCI급 논문이 많으니까 전체 나누기 교수수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하면 달라져요. 그리고 KCI는 뻑뻑하게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얼마 차이 안 나게 다 몰려있어서, 조금만 하면 금세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목을 정해서 긴급처방을 한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조금만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순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원래 본예산에는 연구비가 없나요?

예산팀장 조정숙 : 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그런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나요?

예산팀장 조정숙 :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해서 연구비를 늘린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만약에 연구비가 있으면 그것을 쓰죠. 당연히.

평의원 임정민 : 저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처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도 이것을 TF에서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 혼자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5 -

의장 강명구 : 임정민 의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부분적으로 한 것인데 괜찮으시다면 더 정리하셔서 1월 18일에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심위 위원들이 4분이 와 계신데 4시 반에 또 가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잠깐 설명을 듣고 가야합니다. 처장님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감사합니다.

의장 강명구 : 등심위 위원 3분 오셨나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의장 강명구 : 학생대표들 이신가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의장 강명구 : 오늘 왜 저희가 3분을 모시려고 했느냐면 지금 등록금심의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의장 강명구 : 그것 하고 대학평의회 업무 중에 재단이 내야할 법정전입금 문제가 있어요. 법정전입금을 다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단은 대학평의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재정개선계획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다 못 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재정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내주겠다 하는 그 문서의 형식을 저희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받고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2학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니까 아직 법인이 사학연금 21억9천만원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아까 학생위원 두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알고 설명했는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 오른쪽 구석을 보면 66억1천5백52만원이라는 액수가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다 내는게 정상입니다. 법인이 낼 형편이 안 되면 교비로 대납할 수 있다는 허용규정이 한 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사학연금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인이 안내고 전부 다 교비로 내게 합니다. 교비는 결국 여러분의 등록금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학연금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사학연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법을 개정하며 입법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사학연금만 금지했습니다. 그래

< 간서명란 >

의 장

 - 26

서 그 표에 맨 왼쪽을 보면 법인이 초과지원금 21억9천만원을 낸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법인에서 안 낸다는 얘기이고, 의대라고 하는 것은 부속병원에서 돈을 벌어서 28억을 내는 겁니다. 교비부담금이라고 하는 16억은 100% 교비자금이 나가는 겁니다. 올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록금심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심의할 것은 2013학년도인데, 2013학년도에도 똑같은 식으로 된다면 최소한 16억 정도를 여러분의 등록금에서 내야합니다. 그게 타당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인이 전부 액수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개선계획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재정개선계획서는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사전 심의를 받는 곳이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회입니다. 법이 늦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수용하면 법인은 이렇게 교비로 내겠다는 것을 교육부에 합법적으로 보고하고 법적의무를 벗을 겁니다. 사전심의를 해서 그게 과연 타당한지 여러분이 심사를 해 봐야 할 것이고, 대학평의회도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학년도 법인부담액 21억9천만원도 낸다는 구두약속만 있습니다. 한 번도 법인은 문서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시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2월 28일쯤 입금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지켜지는데, 두 번 구두약속이 안 지켜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하고 21억9천만원도 매달 교비에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교비에서는 나가고 회계연도 말에 21억9천만원을 법인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일 년간 이자는 학교가 부담하고 법인은 원금만 돌려줄 겁니다. 그것도 과연 할 만한 일인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를 언제 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문서로 받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법인은 문서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 시작이 어렵지 한번 받고나면 그 다음에는 문서로 약속을 할 겁니다. 이것은 평의회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습니까?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아직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회계문제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재정개선계획서라는 것은 혹시 법정부담금을 못 내게 되면 꼭 내셔야하고

< 간서명 란 >

의 장



꼭 짚어야하고, 짚어야 할 기관은 딱 두 곳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밖에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세로로 된 페이지 보시면 2012학년도 전출금 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법인과 학교에 주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 법인전출을 56억4천1백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표로 와서 보시면 법인이 본교 분 21억9천만원과 의대 분 28억 3천만원의 법정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한5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병원이 전출한 액수와 차액이 아직 6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법인이 못 낸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년 이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적립한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법인이 돈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내야하는 형편은 아닙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6억 정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누적되어 남은 것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할 사항 중 하나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다 내라, 만약 형편이 어려워 못 낸다면 언제 변제할 것인지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올해 21억9천만원 낸다고 하더라도 문서로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문서로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키지만 안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주면 1년 이자를 우리대학은 손해 봅니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평의원 이순일 : 우리가 오늘 자문을 안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 할 수 없고 그게 가장 큰 사안입니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세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명구 : 허무관 당선자는 다음 안건으로 32대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진정건이 있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점자인 임원형 학생이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설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등록금심의위원회 먼저 들어가시겠어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등심위를 조금 늦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의장님께서 바로 어제 말씀하신 것이 임원형 학우가 학생대표 평의원들과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 간서명 란 >

의 장



- 28 -

되서 의장인 내가 구두로 안전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임원형 학우에게 받은 첨부하신 내용들을 받았고...

의장 강명구 : 잠깐만요. 안전이 32대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진정 건으로 넘어 왔습니다. 펀드투자 결과보고서에 대한 대학본부의 후속조치와 추경예산 두 건은 미결로 남아있고 기타논의사항 32대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진정 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설명한 다음 이홍평의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나가있다가 이따가 임원형 학우와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잠시 퇴장)

의장 강명구 : 제가 안전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접 학생회 평의원 대표를 통해 안전 상정이 어려웠고 시일이 급하여 의장에게 직접 청원을 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 신문에 아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보도 된 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주대학교의 문제가 밖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져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회라면 이 안전을 당연히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평의원회라는 것이 모든 학문공동체 구성원의 대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안전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평의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몇 달 지나야하는데 선거문제라는 것이 시일을 다루는 것이고 또한 아주 고차원의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문제라면 자문의견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무효표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정도는 우리의 견해를 표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평의원들은 모두 동등한 입장이라는 하지만 동시에 대학이란 곳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적인 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교육적인 훈련의 중요성도 감안해서 안전으로 삼을지 말지 조심스럽게 얘기한 다음에 학생들 얘기를 듣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 분은 들어갑니까?

평의원 이홍평 : 이번에 총 투표가 2번 진행되었습니다. 1차 투표와 재투표가 있었는데 저는 1차 투표까지는 있었고 재투표 때 저는 임기가 되었기에 다른 학생회장으로 교체가 되었고 임정민 의원은 2차 투표까지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안전으로 삼을 건지 말건지 논의에 두 분은 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장 강명구 : 선거관리 위원이면서 동시에 평의원이면...

평의원 이순일 : 잘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믿기 바랍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보통 이런 회의에서 빠집니다.

평의원 임정민 : 학생자치기구 고유의... 저는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의장이 제안한 것은 이것을 안전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자는 것인데 두 분은 당사자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꾸로 이 회의안전에 영향을 주려했다고 나중에 오해 받을 수 있어요.

평의원 임정민 : 혹시 그러면 의장님께 질문하나만 드리면 어제 임원형 학우에게 몇 시쯤 전화가 왔는지 여쭙봐도 됩니까?

의장 강명구 :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인가...


평의원 임정민 : 저한테는 전화가 전혀 안 왔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홍평 학우하고 또 한사람 박유현 회장에게 이리이러한 사건으로 문의가 왔는데 문의자가 두 사람에게 적법절차를 통해서 논의를 했느냐고 물으니 이홍평 학우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안전제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이 없었고 내일모레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시급성으로 안전 상정을 요청해 왔다. 이런 절차상의 적법성과 시의성을 고려하고 그 외에 좀 저네 말씀 드린 6~7가지 정도 사항을 고려해서 의장 자격으로 안전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위원분들이 안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또 한 번 다시 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순일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두 분은 이해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의원 이홍평 : 사전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임원형 학우에게 답변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재심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 간서명 란 >

의 장



19일에 보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은 20일이고 저희가 메일을 보낸 날은 19일입니다.

의장 강명구 : 왜 안 된다고 얘기하셨나요.

평의원 임정민 :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의장 강명구 : 자율성 때문에...

평의원 임정민 : (이메일 내용 전달)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읽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최고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 학교 행정상의 부분이나 대학발전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의원회의 안전은 학생대표자가 관련 안전을 제의하는 학내 여러 부서가 얽여있는 학칙심이나 예결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대표자가 제안한 안전은 해당부서와 직접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반려되었습니다. 학생대표자를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중 어느 집단도 학생대표자의 선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생자치기구는 독립적으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합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자문 내용도 자치기구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취소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원형 후보가 학생대표평의원회에 제안한 대학평의원회의 안전 상정 요청을 반려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읽어서 듣는 것만으로는 좀 명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번 주차비 징수 문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총무처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굳이 직접 평의원회로 가져올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견해는 논의를 하되 여기서 어떻게 해라 말라하는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우리가 학문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고적 의견을 낼 수는 있겠다. 특히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얼마만큼의 선거관리 문제가 있는지 진술해주고 듣고 나서 이정도면 권고적 의견을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고적 의견은 기술적인 부분만 다루고 학생자치라는 본연의 가치문제는 다루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대표평의원에게 전화 걸은 것도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평의원회의 권고가 우려된다면 우리의견은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3자인 경기도 선관위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와 보면 금방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게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런 권고는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 하

< 간서명 란 >

의 장



에 조심스럽게 긴급 안전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평의원 이순일 : 두 분이 자리를 피해주셔야 논의가 넘어갑니다.

평의원 임정민 : 혹시나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선관위원장이라도 불러야 되나 싶어서...

평의원 이홍평 : 의원님들께서 보신 자료가 임원형학우가 주신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평의원 이순일 : 아까 양쪽을 다 부르기로 했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르는 것이 맞지 않나...

평의원 이순일 : 그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기술적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A와B 두 분이 선거하는데 한 표차이로 졌다. 그런데 무효표가 344표가 나왔다. 무효표를 제대로 세었는지 안 세었는지 이것이 핵심인거죠?

평의원 이홍평 : 세 번을 세었습니다. 선관위들에게 표주고 세 번을 확인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제가 볼 때는 1차 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2차 투표 하는 것을 양쪽 다 승복을 한 거죠?

평의원 이홍평 : 아닙니다. 표차보다 무효표가 많을 경우에...

평의원 윤갑희 :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일단 문제라고 생각해서 양쪽 다 승복 한 거죠?

평의원 임정민 : 네

평의원 윤갑희 :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효표에 대한 사항이 이점이 없도록 판명해야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무책임하게 무효표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회의록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평의원 이순일 : 간단할 수 있어요.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의원 이홍평 :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효표를 결정할 때 선관위가 주관적으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개표현장에서 참관인들과 같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서명란 >

의


- 32 -

평의원 이순일 :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으면 주면 되는 거죠.

평의원 윤갑희 : 과장이 일고 끝까지 이의제기가 되니까... 이거 문제가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뭣뭣하게 공개를 해버리면 그만이죠.

의장 강명구 : 금방 연락하겠습니다.

(이홍평, 임정민 의원 잠시 퇴장)

의장 강명구 : 팀장님, 저희가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상황을...

평의원 이순일 : 일단 그거만 기록하시면 어떤가요? 의원들 두 분은 이해당사자여서 빠지고 나머지는 만장일치로 일단 의제를 다루는 걸로 동의하였다.

의장 강명구 : 서로 상충되는 두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선관위원장 박유현, 당선자 허무관, 후보 임원형 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오늘은 자문사항도 미완이고 얘기도 길어지고...

평의원 윤갑희 : 말씀을 들으실 때 과정이나 이런 것은 빼고 결과나 기록에 대한 생각만 얘기해라 이렇게...

평의원 이순일 : 좋은 지적입니다. 얘기를 다하면 위험하고...

평의원 윤갑희 : 여기서 괜히 모든 이야기를 다 끌어내면...

평의원 이순일 : 맞습니다. 무효표기준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있는가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무효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불만이 있느냐. 이의제기를 하느냐. 그 다음 선관위위원장에게는 왜 기록이 있음에도 공개를 안해서 이렇게 의혹을 크게 만드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만 말씀을 하라고 해야지...

평의원 이순일 : 제안을 아예 하지죠. 마음에 쌓인 얘기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의장 강명구 : 무효표처리 왜 이의제기를 했느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왜 기록공개 안했느냐...

< 간서명란 >

의

장  33 -

평의원 이순일 : 무효표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확인을 위해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이 두 가지를 세 사람에게 듣고 저희가 의견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권고안을 내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어른들 국회의원 투표 할 때도 별짓을 다하니까 학생들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장 강명구 : 실제로는 저희가 깊게 간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준을 정해줄 필요는 있어요.

평의원 이순일 : 선거관리위원장만 불러서...

(임정민 의원 입장)

의장 강명구 : 선거관리위원장은 종전까지 총학생회장이었지요.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저희가 회의를 참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의장 강명구 : 일단은 이 상황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임정민 의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활동했으므로) 참석하면 이해관계에 상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석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안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평의원 임정민 : 아뇨.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학생대표 2명 퇴장하면 성원 안 되는 거죠?

(임정민 의원 퇴장)

평의원 윤갑희 :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의원 자격으로 있는 거지 직접당사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참석은 하고 반론은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나가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면...

의장 강명구 : 잠깐만 기다려 보시지요.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이사회에서 실무이사 임명을 논의 할 때 그 당사자는 나가
죠, 당사자니까. 이게 당사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발언만 안하
면...

의장 강명구 :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평의원 윤갑희 : 부위원장인가 그런데요.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임정민 의원은 빠지고, 이홍평의원은 1차 개표까지
만 선거관리를 하고 빠졌고 문제로 삼은 것은 2차 개표이니까 이홍평의원은
남아있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이홍평 의원은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가 가서 얘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제가 볼 때는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일 필적으로 사
인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무효표 처리했다든가 이런 것이...

평의원 이순일 : 추천서를 받아야 후보가 되는데 지금 봐서는 유력한 후보
한 명에 대해 당선자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

평의원 윤갑희 : 나중에 344표 무효표 나온 것도 후보들이 아직도 우린 못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평의원 김진우 : 그게 무효표가 아닌지를 판명을 못 할 정도라는 것은 좀 이
상한데요?

평의원 이순일 : 그 정도 되네요. 1차 투표 때 무효표에서 반만 2차 투표를
하고 나머지 반은 아예 투표도 안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어차피 설득이 안 되서 반은 떨어져 나가고 반은 계속 무효
표 만들자고 한 것 같은 숫자네요.

평의원 김진우 : 그렇다면 무효표가 명확할 것 아니에요.

의장 강명구 :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임정민 의원은 상정할 때 있으면 안
되지만 이홍평 의원은 상정할 때 있어도 됩니다.

평의원 윤갑희 : 이의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홍평, 박유현, 허무관, 임원형 학우 입장)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일단 이홍평 의원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하고 후보자 두 사람 들어오세요. 이홍평의원 참석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도록 합시다. 앉으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서 있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홍평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 중 하나가 안전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2차 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기술이 불명확하고 수정하기에는 기억 불분명함.)

평의원 윤갑희 : 잠깐 나가있으시면...

의장 강명구 : 3~4분만 나가있으세요.

평의원 이순일 : 이홍평 의원이 발언 하는 동안 문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박유현, 임원형, 허무관 학우 퇴장)

의장 강명구 : 이홍평 의원이 안 계실 적에 6명이 합의한 것은 학생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하는 정도로만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어보고 진행하기로 하는 한도 내에서 합의했습니다. 충분히 안전으로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홍평 의원이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평의원 이홍평 : 첫 번째는 안전 상정하는데 있어서 학생대표 평의원 2명을 제외시켰다는 것... 연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내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 교직원 대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랑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의장 강명구 :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가 문제가 되었는데 선거관리를 다룬 분이 우연치 않게 대학평의원회 평의원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와 2차가 있었지만 2차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홍평의원은 1차만 선거관리위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고하여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제척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우리가 학생회의 자치권을 해치지 않는 수준 내에서 가장 기술적인 권고적 의견만 내기로 한 겁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36 -

평의원 이홍평 : 자치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수준이... 이게 진행되는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면 징계대상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안전을 올린 이유 중 하나가 학생대표가 연락이 안 되서 내가 직접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학생대표가 연락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임원형 학생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더니 적절한 절차를 다 밟았는데 “학생 대표 평의원으로 부터 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상 여유가 없어 더 기다리지 않고 (학생대표 평의원이 안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의장에게 직접 제청해서 온 겁니다. 지금 이홍평 의원이 의장한테 보여준 메일은 금시초문입니다. 의장은 이와 같이 모든 최선의 (적법한) 방식을 다 거쳐서 한 겁니다.

평의원 이홍평 : 의장님 입장에서는 임원형학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회의 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명구 :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그 메일은 이 자리에서 처음 본 것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양쪽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고 갈등상태에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다 한쪽에서 호소를 했어요. 그럼 판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홍평의원께서 그것 아니라고 했다 고해서 그 말만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논의를 안 해버린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의원 이홍평 : 그 판단을 왜 평의원회에서 하나고요.

평의원 윤갑희 : 평의원회에 이게 올라와 있자나요. 올라와있으니까 아까 이홍평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다뤄야하냐 말아야 하나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학생들의 문제이고 해서 학내의 문제인데 더 불거지지 않는 선에서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실여부를 들어보고 권고안 정도로 얘기를 하자. 그렇게 말씀들을 나눈 겁니다.

평의원 이홍평 : 다뤄줘야 한다는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 간서명란 >

의장



- 37 -

평의원 이순일 : 모든 의원들이 발언하시고 다행히 만장일치였습니다.

평의원 이홍평 :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기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가있었으니까요.

평의원 윤갑희 : 주로 여기에 올라온 내용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 그런데 무효표 처리문제와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 정도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룰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아무리 자치기구지만 스스로 문제가 있을 때 아무런 구체조치가 없다면 학문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밖에 없지 않느냐. 대법원에 가셔도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가듯이 여기서 한번 자문의견을 구해보자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누가 되든지 간에 1표 차이인데 무효표가 344표라고 하면 누구라도 학생들이 개표하는데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효표 문제를 확인해서 누가 되든지 간에 틀림없다하면 학생들한테도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누차 말하지만 학생 자치권에 대해서는 가장 최소한으로 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술적인부분만 권고 의견 수준으로 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홍평 의원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양 쪽 두 분 들어오세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박유현, 허무관, 임원형 학우 입장)

의장 강명구 : 지금 당선되신 분이 허무관 당선자이고 이의를 제기한 임원형 학생. 우선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학생회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긴급 사안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확인을 했고 이홍평 학우께서 답변을 줬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그 와중에 이런 것이

< 간서명 란 >

의 장



있기 때문에...

(임정민 의원 입장)

의장 강명구 : 임정민 의원은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2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었죠?

평의원 임정민 : 이홍평의원과 제가 뭐가 다른 건지...

의장 강명구 : 이홍평의원은 1차까지만 선거관리위원이었고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2차 선거결과가 난 이후에 문제입니다. 1차 때는 문제가 없고 2차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임정민 의원은 제척사유가 있어서 제외하고 이홍평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임정민 : 의장님께서 문제를 잘못 잡으신 것이 무효표라는 것을 1차 투표에서 확실히 제정을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것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홍평 학우 와있고 담당자들도 다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권고적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아주대학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 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달라고 하여서 받아준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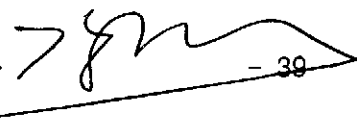
평의원 임정민 : 그렇게 되면 교수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평의원회에서 논의해도 되고 그래도 되나요?

의장 강명구 : 교수회에서 누가 문제제기를 해오면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임정민 의원이 주차 문제 건 논의하자 했을 때 다 받았어요. 제가 의제를 안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은 무지하게 신중하게해서 의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의견을 다 묻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임정민 의원이 앉아있는 것은 이해관계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안전상정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었다는 말씀입니까?

< 간서명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그런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평의원 이홍평 : 의장님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저는 이 논의에서 의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시 하죠. 다시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임정민 의원은 여기서 퇴장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시는데 잘못하면...

의장 강명구 : 잠깐만요. 간단하게 여기서 이 안건을 논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투표해 주십시오.

평의원 윤갑희 : 의장님 그러면 다수결하는 것이니까요. 다 앉은 상태에서 잠깐 미안한데 저 세분은 나가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잠시 잠깐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장일치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홍평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다수결이었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이의가 없었습니다.

평의원 이홍평 :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해도 의결사항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강명구 : 이의제기한 것 다 들었고...

평의원 윤갑희 : 임정민 의원도 앉아서 잠깐 말씀하실 것 하셔야죠.

평의원 임정민 :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의장 강명구 : 아무 상관없는데 논리구조상 제척사유가 됩니다. 2차 이후에 했기 때문에...

평의원 임정민 : 제가 이쪽이 당선자이든 이쪽이 당선자이든 이가 뭐고 해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할게요.

의장 강명구 : 선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이죠.

평의원 임정민 : 아까는 이해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의원 이순일 : 이해관계라는 것이, 선거관리과정에 참여했고 개표과정에서 무효표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선거관리 당사자는 이해관계자라는 것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아까 말씀하실 때 관계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평의원 윤갑희 : 어느 한쪽에 관계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효표 처리에 관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의원 임정민 : 저 친구는 1차 투표 때만 했으니까 있고 저는 둘 다 했으니까...

의장 강명구 : 그렇죠. 정확합니다. 2차 투표 때 선거관리에 개입했느냐 안했느냐. 관여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발언권이 없죠.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을 수 있고 임정민 의원은 문제되니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의 의견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여기에서는 의장님께서 잘못 잡으신 것이 맨 처음에 무효표의 과정을 결정한 것은 1차 투표였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에서 이홍평의원은...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조금 있다가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듣고 문서를 보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의장 강명구 : 임정민의원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럼 먼저 시간이 없고 하니.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5시30분에 약속이 있는데 아까 5시부터 왔다 갔다만 시키고요. 말씀도 안 들으시고 해서...

평의원 이순일 : 지금 들을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3분 동안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시간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임정민 의원 퇴장)

의장 강명구 :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라면 복잡하고...

평의원 이순일 : 지금 3분 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아까 합의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확인할 것은 문서화된 무효규정이 있는지 하는 것 아닌가요? 무효표에 대한 공개도 확인해야 됩니다.

의장 강명구 : 박유현 학우에게 여러 의원들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무효표처

< 간서명 란 >

의 장  - 41 -

리에 관해서 많은 이의가 있었죠. 무효표의 준거기준이 뭐였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선관위의 결정이고 이는 선거규약에 무효표 기준 사항에 이의 무효표는 선관위가 결정한다는 원칙대로 실시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선관위의 무효표 기준은 어떤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선관위가 모두다 의결을 통해서 참관인과 함께 무효표를 봤고요. 표현을 하자면 딱 다섯 가지입니다. 안 찍혀있거나, 가운데 찍혀있거나, 바깥에 찍혀있거나, 참관인 도장이 없거나, 겹쳐 찍었는데 교집합이 있거나, 겹쳐 찍었는데 교집합을 벗어났거나, 다섯 가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무효표로 진행을 했고 이 외에도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세 개정도 찍고 네 개정도 찍었는데 겹쳐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그것은 말로 참관인과 선관위 모두 자리한 곳에서 규정했고요. 무효표 보고 모든 선관위원들이 의결 통해서 무효표다 이쪽 표다 저쪽 표다 결정을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무효표 처리의 기준을 얘기해주셨고...

평의원 이순일 : 잠깐만요. 전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서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누군가 그것에 맞게 카운트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강명구 : 그렇다면 기록을 공개해서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차 투표 때부터 저희 선관위가 규정한 기준이고요. 이유는 외부 선관위 영통구 선관위 이런 데에서는 두 번 찍어도 이쪽 찍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세운기준이고 저희 선관위가 세운 기준입니다. 선관위 해체는 선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시되는데 저희는 선관위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표를 다시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선관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선관위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 표를 재검토 할 수 없다.

평의원 윤갑희 :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기록을 왜 공개를 못합니까?

의장 강명구 : 선관위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같은데...

평의원 이순일 : 아니요. 그래도 회의록은 남아있어요. 무효표 기준을 문서로 제출하는 건 될 것 같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 42 -

평의원 김진우 : 문서화되어있는 무효표 기준이 있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선거규약에 제가 정확한 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효표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1안이 참관인 검인이 없는 것 2안이...

평의원 김진우 : 그게 문서로 되어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4안이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다 까지 해서 이 4가지가 정확하게 선거 규약에 나와 있고 이것은 학칙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 밖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그 문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기록된 것이 남은 것이 없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왜냐하면 모든 학보사와 ABS등 방송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양쪽 선거 참관인이 이를 동의했고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녹취나 속기 없이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1차 투표입니다. 아까 임정민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무효표 기준을 1차 때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1차 때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2차 때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평 의원이나 임정민 의원이 여기에 있나 없나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1차 때 그 기준을 세웠고 그 당시에는 녹취나 속기를 하지 않았습니 다. 이유는 모든 참관인들과 거의 70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차 개표 때는 녹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기준에 대해서 기존과 같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양 선본 참관인이 맞다고 동의를 했 고요.

의장 강명구 : 정리하자면 박유현 학우가 얘기한 것은 무효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모두가 합의한 무효표 기준이었다. 다만 무효표 기준이 경기도 선관위와 맞는지 틀린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칙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이 말씀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맞습니다.

의장 강명구 : 더 박유현 학우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까? 중앙선관위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열 수 없다.고 하였는데. .

< 간서명 란 >

의 장  - 43 -

평의원 이순일 : 하나만... 마지막 규정이 그러면 매년 무효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개표하기 전에 모두가 합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해보면 되고, 기록은 없고, 매년 무효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지금 그것 말고 더...

의장 강명구 : 기록은 없다. 매년 바뀐다. 합의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무효표 기준을 한 것이 대선이나 국회의원선거 같은 통상적 선거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저희는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선본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적은 것만 인정을 해야 되고 겹친 거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 말자고 한 것이 오히려 이의제기를 한 액션선본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인자가 다 보이고 완벽하게 표로 인정되는 것만 저희가 표로 인정을 했고 그로인해서 그런 타이트한 규정이 생기는 바람에 무효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우리는 아무런 편견없이 아주 공평한 입장에서 (학생회) 자치권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권고의견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대학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관행을 지키자는 것은 매우 주요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겁니다. 박유현 학생 얘기를 듣자면 원칙을 정해서 민주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졌다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바쁘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없으시면 박유현 학우 수고했습니다.

(박유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장)

의장 강명구 : 문제제기를 해주신 임원형학우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무효표 처리에 박유현학우가 얘기해주신 기준에 다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무효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는 기록공개에 유무에 관해

< 간서명 란 >

의

장  44

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임원형 : 1차 때는 녹취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녹취가 되지 않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1차 때 개표했던 저희 참관인은 송병조학우입니다. 송병조 학우께서 주장했던 것은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기존에 했던 방법을 최대한 살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때 무효표가 700표 이상 나왔습니다. 2차 투표 때도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의제기를 했고 무효표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상의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부터는 확실히 가장 좋은 제안을 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의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선관위에서도 저희보다 좋은 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1차 투표 때 무효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온 것 아닙니까?

임원형 :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무효표 기준이 같지 않아요?

임원형 : 완전히 같지 않은 걸로 확실히 기억합니다. 수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홍평 : 뭐가 다릅니까?

임원형 : 그것은 중선관위 위원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평의원 이홍평 :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것이다 입니까? 다른 겁니까?

의장 강명구 : 박유현 학우가 아까 얘기할 때 합의 하에 다섯 가지 케이스인가 이런 것들 합의 하에 무효표 기준을 1차 투표 때 결정했고 그것을 2차 투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서 하기로 했다. 두 번 검토했고 동의했다. 이렇게 까지 얘기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임원형 : 합의 과정에서 저희는 확실히 계속해서 이 기준이 강하다 완화하자가 아니라 더 나은 기준을 제안하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2차 투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임원형 : 2차 투표 때 무효표 기준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강명구 : 2차 투표 때는 1차 투표 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만 확인해주십시오.

임원형 : 1차 때 구두로 합의로 했고요. 2차 개표 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저희 주장과 선관위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문서화를 요구를 했고 중선관위에서 문서화를 해주기로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강명구 : 조금만 디테일하게...

임원형 : 그래서 2차 때는 동의를 못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1차 투표 때 무효표 기준을 합의했죠?

임원형 : 네 1차 때는 합의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합의를 적에 이것을 끝까지 2차 투표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자는 것을 합의했습니까? 아니면 딱 한 번에 해당하는 무효표 기준입니까? 왜냐하면 매년 바뀐다고 하니까...

임원형 : 제가 솔직히 말해서 법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1차 개표시기에는 1차 투표로 한다고 공시하지 않았고요. 개표중간에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이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1차라고 했었습니다. 개표중간에 1차라고 확인 했던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1차 때 기준을 완화하자고 이의제기를 했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강명구 : 2차 투표 때는 합의했습니까? 합의 못했죠?

임원형 : 네

의장 강명구 : 그래서 1차 투표 때 기준 그대로 적용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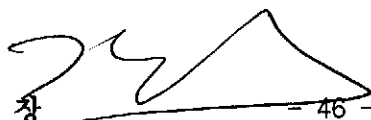
임원형 : 네. 1차 투표 때 기준도 말이 달라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1차 투표 때 무효표기준에 동의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 기준을 2차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한바 없고 그런 와중에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2차 투표했는데 새로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또 질문 하실 사항 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제 생각에는 가면 갈수록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효표에 대한 기준은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1차 투표 무효표 기준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차 투표 무효표에 대한 기준이 임원형 학우도 가지

< 간서명 란 >

의

 - 46 -

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원형 :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평의원 윤갑희 : 그러면 여기 말미에 보면 자신들의 회의기록도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회의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요구 하는 거죠?

임원형 : 중선관위에서는 회의를 해서 중선관위 홈페이지에 회의를 기록합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처음에 했던 액션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받은 회의기록 빼고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개해 달라 그런데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임원형 : 1차 때 회의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그쪽이 녹취를 안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녹취를 안 해도 회의기록은 남지 않나요?

평의원 이순일 : 녹취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록은 있어야할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무효기준을 논의했다면 그건 반듯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습니까?

임원형 :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평의원 이홍평 :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무효표 기준을 정한 1차 투표 회의록이 없다. 구두로 합의한 무효표 기준에 따라서 진행했고 1차 투표가 무효화되고 2차 투표 때도 해서 그 기준을 적용했다. 그래서 한 표 차이가 났다. 이거죠? 무효표 기준을 삼은 1차 투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러면 문제 제기해 준 임원형 학우에게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평의원 윤갑희 :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가 1표차에 무효표가 344표로 되어있어요. 지금 이의제기 하는 게 무효표에 대한 무효표 처리가 잘못되어서 숫자가 잘못 나왔다, 총득표수가 잘못되었다는 어떤 개연성 내지 확신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명하지 못해서 라는 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까?

임원형 : 저희가 제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무효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서요.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윤갑희 : 무효표에 대한 공개는 통상 선거 개표할 때 보면 양쪽 참관인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공개해야하는 것이지 나중에 이게 무효표다 하면서 다시 공개하는 것은 없거든요.

임원형 :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나면, 무효표에 대한 기준을 주관적으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의결권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개표 과정에서 저희 투표가 상대편 표에 2개가 가있었습니다. 그 표가 저희한테 카운팅이 되면서 4표를 앞서게 되었는데, 무효표가 2차 때 저희가 8표가 추가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났고요 저쪽은 5표가 결정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합의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무효표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무효표 처리가 된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달라고 했고 무효표 이의제기를 한번 다시 했습니다. 무효표 때문에 당락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무효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의제기를 했고요. 중선거구에서도 무효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무효표를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다음날 소집이 되었던 겁니다. 다음날 소집에서 상대편 선본에서 무효표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무효표 재검표는 필요 없다 충분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요구는 무효표라도 공개를 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부당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만약 무효표를 확인해서 선거의 증거를 확인하면 수용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임원형 : 당연합니다.

평의원 윤갑희 : 상대 선본에서 나중에 이의제기 한 것은 이미 표가 공개되었는데 그 이후에 무효표인지 아닌지 기준을 다시 정하자는 것에 대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누가봐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형 : 저희는 무효표를 받은 게 개수를 전혀 세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요청을 할 때도 어떤 게 무효표인지 그냥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무효표 숫자가 저희가 유리하다는 판단은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48 -

평의원 윤갑희 : 아니 그러니까 표를 확인하고 숫자를 따지고 이르기 전에 표가 이미 공개된 다음에 무효표 정하는 기준을 다시 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에서 마지막에 이의제기 한 것은 수용을 할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통상적인 상식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형 : 네네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 표를 공개한 다음에 무효표의 기준을 바꾸자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원형 학우가 한 말은 1차 때 얘기했던 무효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2차투표 무효표를 재검토하자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임원형 : 솔직히 말하면 저희 첫 번째 의견은 무효표 개표 중이었습니다. 무효표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표가 많은 것만 보고 어떤 게 무효표인지 확인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미 무효표가 다 공개된 상황이라면 무효표 기준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음 선거 때 적용이 되어서 더 나은 선거를 유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차 때 기준으로 확실히 정해가지고 1차 기준을 명확히 한 다음에 무효표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장도 발언했고, 임원형 학우도 한 것이 1차 때는 문서로 없지만 하여간 합의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임원형 : 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년 무효표 기준이 바뀌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1~2차에 바뀌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무효표 기준은 하나여야 할 것입니다. 뭔가 1차에 합의한 기준이 있으면 그걸 공개해서 카운트만 되면 결과는 승복할 것이다.


임원형 : 제가 왜 바꾸자고 했던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효표에 대한 기준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평의원 이순일 : 우리가 어떻게든지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차 개표 때 무효표 기준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면, 그 기준에 따라서 표만 확인하고 나면 결과는 승복할거죠?

임원형 : 네

< 간서명란 >

의장



의장 강명구 :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1차 투표 때 무효표 기준이 구두로 합의되고 회의록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매해 바뀐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한3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도 아주대는 10위권에 드는 명문사립대학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여기까지는 됐고.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학우 당선된 사람 입장으로 참 나오기 곤란한 건데 우리 학교가 좀 더 민주적이고 명확하게 매듭짓고 나아가기 위한 것이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의장 강명구 : 마찬가지로입니다. 똑같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효표 처리 기준, 아까 박유현 학우가 얘기한 다섯 가지 기준 혹시 알고 있었나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혹시 그 무효표 처리 기준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십니까?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제가요?

의장 강명구 : 네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저는 그 기준... 처음에 빠진 게 있습니다. 1차 투표 때 참관인과 2차 재투표 때 참관인과 마지막 검표 시 참관인이 저희는 세 명 다 동일한 사람이 들어갔고요. 선관위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고 세 명만 대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논란이 많았다고 했었는데 그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논란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1차에 들어갔지만 2차에 참관인으로 들어가지 않은 송병주 한명이 논란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술이 안 맞는 건 그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그 한명이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선관위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 한 학우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모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의를 제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올라온 참관인 즉 송병주 학우는 1차 때 들어갔고 재투표 때는 이기웅 학우가 들어갔습니다. 이기웅 학우가 처음에 와서 했던 말은 저는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당시에 투표 규정이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해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인수

< 간서명란 >

의장



인계를 받지 않은 것은 선본의 과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모든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한쪽 선본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말했던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엄격한 무효표 기준들은 아까 여기 있었지만 지금 없는 부총학생회장 이 학우가 이곳을 지지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이곳의 표로 카운팅을 하자는 의견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액션에 참가인으로 들어갔던 송병주 학우입니다. 저희는 1차 투표 때 350표 정도의 차이로 이긴 상태였고 무효표가 약 700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과 과정들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겸허하게 수용했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투표 기준 그 무효표 기준에 따랐습니다. 2차에는 모든 규정이 다 완료되었고 투표를 상호 동의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개표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2표가 들어갔다고 하였지만 저희가 3표 차로 진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표하는 사이에 저희가 무효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완성되었을 때, 모든 게 검표가 끝났을 때, 즉 3번 표를 훑어보았을 때 결과가 1표 차이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제 그 1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1표로 이겼기 때문에 무효표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구두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새로 정해서 이걸로 다시 검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말로 민주적이고 상식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쪽 이어왔던 절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민주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일관된 논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 하시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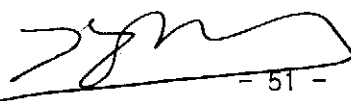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그 틀을 바꾼 것 또한 저희 선거본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단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번복을 한다거나 대자보를 붙이거나 선거의 공정을 흐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검표 때는 무효기준을 분명히 구두라도 합의한 게 있다. 동의합니까?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1차 때 구두로 합의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양쪽 후보 두 사람이 모두 1차 개표 때는 합의된 무효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지금 투표함을 그 1차 기준으로 카운트해서 결과가 나오면 수용 할, 승복 할 의사가 있습니까?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투표 했을 때 표를 세 번이나 검토했습니다. 이의를 달지 않고요. 마지막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이전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이쪽 선분을 지지하면서 선거 관리를 한 위원이 있습니다. 증거를 포착했고 그 당시에 바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가장 명확한 근거는 그 당시에 카운팅 된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분이 그리고 모든 선관위원이 다 체크를 한 표, 그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표 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쪽 선분을 지지하는 그런 선거관리위원이 있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결과가 참인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하여튼 우리가 들으면서도, 선거의 당사자들은 자세히 기억하시지만 저희들은 그 중간의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기준에 모두가 합의했느냐 그리고 합의한 투표 기준을 가지고 2차 투표에 대한 검표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면 한쪽에서는 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느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평의원 김진우 : 두 후보한테 다 얘기를 하겠는데요. 검표할 때 무효표 판정할 때 양쪽 참관인이 다 참석하셨죠?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평의원 김진우 : 개표할 때 끝까지 다 계셨죠? 양쪽이 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평의원 김진우 :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나갔다면가 이런 것 없고 참관은 끝

< 간서명란 >

의 장



까지 다 이루어 진거죠?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평의원 김진우 : 그렇다면 개표결과가 양쪽이 다 합의를 했다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평의원 윤갑희 : 양쪽에서 답을 해주셔야죠.

임원형 : 저희는 마지막까지 무효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줄 알았고 실제로 다시 확인한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에 다시 모였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당선자께서도 인정 하시나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무효표 기준을 서면화해서 무효표를 새로 봐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증인 요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서면 요청 부분은 빼고 승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그 확인을 요청한 것이 무효표 기준을 새로 정하자...

평의원 이순일 : 아 그것을 수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결과를 수용했으면 새로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진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검표가 끝났을 때 양쪽이 다 수용했느냐는 하는 겁니다. 양쪽이 다 수긍했느냐 아니면 한쪽은 수긍 못했느냐?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저는 양쪽 다 수긍했다고 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장 강명구 : 임원형 학우, 수긍했습니까?

임원형 : 수긍하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무효표 처분 할 때까지 저희는 무효표 처리를 임의로 하지 말라는 의사가 있었고...

의장 강명구 : 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임원형 : 무효표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무효표를...

의장 강명구 : 어떻게 불명확했죠? 1차 기준하고 달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1차 기준을 마음대로 정했단 건가요?

< 간서명 란 >

의 장



임원형 : 실제로 2차 개표 때도 저희 참관인은 무효표 검표를 다시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계셨던 박유현 중앙선거위원장님이 주로 받고 저희는 무효표를 실제로 보지도 않았습니 다. 만져보지를 못했습니 다 무효표에 대해서... 표를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검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가장 많았던 무효표에 대해서 제가 검표를 했었고요. 새벽 4시에 제가 올라가서 무효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중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가 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중지시키고 다음날 다시 보자라고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맞죠?

평의원 이홍평 : 참관인이 무효표를 확인 안했다는 것 책임질 수 있는 말입 니까?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올라가지 않았습니 다.

평의원 이홍평 : 참관인이 무효표를 안 봤다는 발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임원형 : 잠시만요.

평의원 이홍평 :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말씀하십니까?

임원형 : 제가 확인하고 말 했는데요.

평의원 이홍평 :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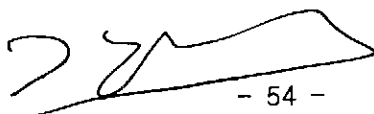
임원형 : 무효표를 하나하나 확인 못했습니 다. 2차 재검표 때 못했습니 다.

의장 강명구 : 1차 때는 뭐 우리가 문제 안 삼는 겁니다. 새로 재선거 했으 니까. 2차 투표 때 쪽 검표하고 무효표가 있죠?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왔으 니까 재검표 하자 이랬을 적에 무효표의 기준이 1차 때 합의한 기준 그대로 적용했고, 그래서 양측에서 참관인이 보고서는 다 카운트 했어요. 카운트 한 결과 1표를 임원형 학우가 진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했고, 2차 검표 했습 니까? 검표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안했다 이 말이죠?

임원형 : 2차 투표때 개표를 했고요. 검표를 다시 했어요. 저희가 요청을 해 서요. 검표 당시에 저희가 무효표 확인을 못했었고요. 무효표 확인을 다시 하 는 중간에... 여기 주장대로라면 무효표에 대해서 재검표 중이었습니다. 무 효표에 대해서만. 저희는 그게 하나의 일정인 줄 알았고, 무효표 재검표 중 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화 된 게 없었기 때문에 무효표에 대 해서 이의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하자라고 해서 다음날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무효표 재검토를 못하게 된 겁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임원형 학우의 말은 무효표 재검토의 과정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다, 완결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선자 쪽에서는 내일 다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있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래서 다음날 다시 확인하자는 얘기는 합의가 된 것인가요?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 사실과 사실이 다릅니다. 선관위원장을 다시 불러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서 임원형 학우가 했던 모든 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 말에서 중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우리가 그것을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번에 하나씩만 확인해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여간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윤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한쪽에서는 재검표를 하다가 시간이 걸려서 다음날 하자고 했다는데 그것에 동의 했나 안했나 하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저희가요?

평의원 이순일 : 글썸. 답을 좀 간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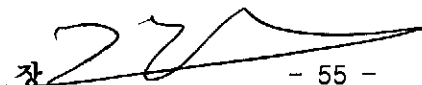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그러면 그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질문에서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아니지, 그런건 아니고요. 이렇게 합시다. 현재 당선된 분이나 떨어진 분이나 다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심정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몹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낙선한 분이 새벽4시에 올라가서 무효표를 점검하다가 시간도 늦었고 해서 내일 다시 모여서 하자라고 합의를 봤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모여서 그냥 당선...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그런데 그게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검표를 끝낸 이유가 뭐냐 하면 투표함이 공대부터 간호대까지 순서대로 있

< 간서명 란 >

의

장 

습니다. 공대부터 간호대까지 모든 검표를 끝내서 1표로 저희가 이긴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무효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일 서면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검표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한 내용에는...

평의원 이순일 : 그 시점에서, 그 순간에 거부했습니까?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그 순간에 바로 휴정되었습니다. 새벽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휴정이 재개되자마자 저희가 한 이의제기는...

평의원 이순일 : 재개는 언제 되었습니까?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다음날 오후 7시에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냈고요. 그때 이의제기를 한 내용은 무효표를 재설정 한다거나 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그리고 선관위가 논의를 했던 결과 거기서 의결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당선 공고가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니까 fact는 한쪽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4시까지 완료 못했고 그래서 휴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재개를 했을 때 이쪽에서는 다시 이것을 중지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선관위가 수용을 했다?

평의원 김진우 :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는데요. 일단 재검표를 하는 것까지는 완료가 되었죠? 양측 참관 하에서?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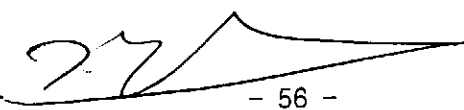
평의원 김진우 : 거기까지는 일단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준을 정해서 다시 검표를 하자는 임원형 후보 측에서의 제안인 것 같고 이쪽에서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거부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임원형 : 약간 하나 더 있습니다. 1차 재검표가 끝났다고 저희는 동의를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날 무효표에 대한 재검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제가 무효표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무효표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송병주 학우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송병주 학우의 무효표 기준하고 중선관위 기준하고 달라서 무효표 보는 중간에 정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화해서 내일 다시 개표하자 재검표하자라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재검표 하자라고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선관위원장이 오

< 간서명란 >

의 장



케이를 한 거예요?

임원형 : 재검표 중이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아니 그러니까요.

평의원 이순일 : 재재검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재재검표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4시에.

임원형 : 네

평의원 윤갑희 : 그때 선관위원장이 오케이를 한 겁니까?

임원형 : 네. 문서화해서 다시하자고 했는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문서화하는 방법, 1차 투표함을 열어서 1차 투표의 무효표의 기준을 보면 확실해지잖아요. 저희가 회의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차 투표함을 다시 열어서 무효표를 서면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왜냐하면 1차 개표에 대해서 저희 동의 없이 개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평의원 김진우 : 다음 질문인데요. 규정상 검표는 몇 번 하게되어있다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임원형 : 검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개표하고 검표 한번해서 끝낸다는가,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면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한다는가.

임원형 : 이의제기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24시간까지 시간을 주는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 검표를, 재검표를...

평의원 김진우 : 몇 번도 할 수 있다?

임원형 : 상식적으로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정리하자면 2차 투표를 해서 무효투표 많이 나오니까 재검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봐야 되겠다 하는데 중간에 새벽 4시쯤 되어서 안 되겠다 새로 하자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안했다 이 말 아납니까?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 간서명란 >

의장



- 57 -

죄송한데요. 상황이 꼭해가 될 것 같아서, 무효표를 임원형 학우가 못 본 겁니다. 임원형 학우가 못 봤지 액션 선거운동본부는 무효표를 봤습니다. 참관인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참관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는 봤지만 나는 못봤어. 그래서 새로 볼거야 라고 말씀 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거운동본부가 무효표를 다 보지 못 했습시다라는 발언은 틀린 발언입니다. 그때 참관했던 참관인들은요. 당시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선거운동본부장이고요. 그 본부장이 본 상태에서 무효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무효표인지 내가 가서 봐야겠어 하고 올라가셔서 보신게 임원형 학우가 올라가서 봤습니다. 확인을 해야되겠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평의원 이효철 : 이거 지금 임원형 학우께서 이렇게 심의 요청서를 냈잖아요. 이 요청서를 낼 때 개인 혼자 생각해서 쓰신 거예요? 그때 상의했던 사람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임원형 :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평의원 이효철 : 그럼 그때 참관했던 분들도 있었겠네요?

임원형 : 네

평의원 이효철 : 참가를 했으면, 자기가 참가를 해서 자기소임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진정 제안 내용을 다 했는데, 자기가 그때 그럼 그 직무를 회피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안했다는 것을 증명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왜 그때 자기 임무를 다 했어야죠.

임원형 : 네 저희도 부족한 점을...

평의원 이순일 : 그런데 들어보면 두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1차 합의했던 기준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아주대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규정상도 미비한 점이 많고, 관리상도 잘못된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저희가 다 월가월부 할 수는 없고 지금은 누가 학생회장이 되든지 간에 명예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당성만 부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선관위원장에게 물어봅니다. 구두로 합의된 다섯 개 무효표 기준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안 할겁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 58 -

평의원 이순일 : 응? 왜?

의장 강명구 :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에 안한다니...

평의원 윤갑희 : 안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없다고 답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 무효표 기준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저희 선관위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게, 오히려 투표를 한 사람들이 알아야 지 선관위만 알아야 되는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그 전에 회의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무효표를 평의회에서 직접 보시는건가요?

평의원 이순일 : 아니, 보겠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었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그런거면 드릴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글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지금도 적어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어떤 표가 누구든 볼 적에 아까 박유현 학우가 5가지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을 합의한 기준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냐는 그 얘기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네

의장 강명구 :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지금 이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부실한 선거 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볼 때. 그러니까 기준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또는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했었다라는 것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의원님 말씀처럼 양측에서 이해를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과정이 미흡했지만 그 때 그 때 이의제기를 못하거나 안하고 또는 했지만 다수결이나 또는 선관위원장 입장에서 정리가 되어서 진행되었단 말이죠. 이의제기가 있었더라도. 그래서 쪽 갔다고 하는

< 간서명 란 >

의 장



- 59 -

것이 끝까지 가서 검표가 끝났다 그렇게 보면 인정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아예 무효처리하고 재선거해라 이렇게 권고안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할 때 학생의 자치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네.

평의원 윤갑희 : 그런 것이 본의 아니게 훼손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엄청나게요.

평의원 윤갑희 : 그래서 선관위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 15일이 지났으니까 해체되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중재해주어야 한다.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럴 의무가 없겠지만 지금까지도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것이 일반 우리가 밖에 일로 친다면 선관위에서 안 되면 검찰이 수사하려고 달려들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밖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네

평의원 윤갑희 :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그냥 날짜 지났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이의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반려를 했습니다. 원칙적이었고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쪽입니다. 그것도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고요.

평의원 윤갑희 : 당연히 그건 그렇죠. 이의제기를 이긴 쪽에서 할 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해서 끝입니다. 더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긴 쪽에서 무슨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저희가 재검표 요청을 받아서 검표를 다시 한번 했고요. 계속 재검표를 했을 때 만약에 진 선본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뒤집혔다고 봅시다. 다른 데에서도 이의제기를 또 하겠죠? 또 재검표를 하고, 또 재검표를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효표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실제로 애매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 60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접한 것은 무효표로 처리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접했는지 교집합을 이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갖고 올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평의원 이순일 : 필요하면 갖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잖아요. 너무 얘기를 지금 확대하는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그 확대를 지금 평의원분들이 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그 무효표 재검표가 모두 다 끝났고요. 실제로 그 무효표에 대해서 양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결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는 바라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뒤집혔다면 또 이의제기, 또 이의제기...

평의원 이순일 :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두 후보에게 아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서로 불만족스럽지만 공히 사용했던 기준이 있느냐 그것을 문서로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되었든 지간에 두 사람이 되든 아니면 두 사람이 추천하는 누가 되든 확인해서 그 결과가 되면 수용하겠느냐, 수용하면 간단히 끝날 일인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제 말씀은 저희 학생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단과 대학 회장들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신뢰를 갖고 있는 그 선관위가 모든 업무를 마쳤는데 그걸 왜 평의원회에서 자꾸 다시 하라 권고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의장 강명구 : 박유현 학우가 얘기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안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아까 다 토론한 것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권고라는 것 자체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의원 김진우 : 질문하나 할게요. 아까 선관위원장 없을 때 질문했었는데 지금 규정을 여쭙볼게요. 개표를 하고 검표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 검표를 또 요청할 경우에 계속 검표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규정은 개표 완료 후 당선공고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검표의 절차는 원래 없습니다. 당선공고 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 간서명란 >

의장



이의제기가 가능하고요. 24시간 이내에 곧장 개표 되자마자, 한 선본에서 검표해달라. 표 차이가 너무 적게 나지 않았느냐 해서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곧장 검표를 했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그것에 대해서 검표를 한번 끝났으면 동일사항으로는 또 요청할 수 없다가 하는 규정이 혹시 없느냐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규정으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동일한 검표에 대한 이의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받지 않는 것으로 한나라며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그러면 1차 검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 결정난 거다라는 선관위의 입장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네

평의원 이강준 : 재검표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네

평의원 이강준 : 1차 검표하고 재검표하고...

평의원 김진우 : 검표를 한 번 했다는 얘기죠? 개표한번 하고 검표한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개표할 때 모든 검표와 무효표 이런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검표가 있었던 겁니다.

평의원 윤갑희 : 검표를 한 것은 전체를 한 거예요? 아니면 무효표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전체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래서 혹시 숫자 변동은 없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검표 때 숫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검표 때 혹시 숫자 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총 13표의 숫자 변동이 있었고요. 무효표에서 어떤 선본으로 간 것이 있었고, 이 쪽 선본에 있었는데 무효표로 간 것이 있었고, 이쪽 선본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넘어간 것도 있었고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러면 결과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 간서명란 >

의

장 

- 62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이의제기는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그 뒤에 이의제기가 또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지 말라라는 상충된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그러면 추가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된겁니다.

의장 강명구 : 하여튼 정리하자면 투표했어요, 투표함 열고선 1차로 개표했어요,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또 검토한 케이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문제가 있다기 아니고 너무 적은 표 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자.

의장 강명구 : 한 번 더 보자 해서 재검토 했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네

의장 강명구 :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13표 차이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디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13표가 왔다 갔다 했으니 문제 있다 또 하자 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하자 저쪽에서는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네

의장 강명구 : 상황이 그리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더 팩트가 나올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도 알겠고 상황도 알겠고 뭐가 잘못됐었는지도 알겠고... 저희가 그냥 논의하고 결정을 하죠.

의장 강명구 : 시간도 많이 되었고, 이렇게 복잡하네요.

평의원 김진우 : 다른 의견들, 할 얘기 없으면...

의장 강명구 : 임원형 학우, 아니면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무관 당선자 이의제기 할 것 있습니까? 사실관계 다른 것 있습니까?

임원형 :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아까 얘기가 다르긴 한데 말을 함구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한 가지 확실하게 모든 평의원님들이 객관적 상황에서 얘기한 것 하나가 무효표 기준이 매번 바뀐다는 것에 놀랐고요, 무효표 기준이 합의된 공식 문서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놀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권고 의견으로 1차적으로 모두가 합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 간서명 란 >

의 장



그리고 그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국가 선거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권고되는 의견입니다. 이홍평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평의원 이홍평 : 네. 동의합니다.

의장 강명구 : 이것은 1차로 저희 권고된 의견인데 가장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 지금 이와 같이 표가 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솔루션을 내놓을 것인가 각자 말씀해주시시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저희끼리 회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장 강명구 : 그렇죠?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유현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입니다. 1만 명의 학우가 뽑았고 저는 800표 차로 당선이 되었고 많은 학우들의 지지를 얻었고 1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시작부터 정당성 크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의원회 분들께서 크게 아주대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정당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학생 사회를 전반적으로 흔들고 계십니다. 이유는 현재 등록금심의위원으로서 당선자 들어가 있고요. 중앙운영위원회 새로 꾸려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시작, 당선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무효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준을 새로 정하고 이런 논의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까도 결과는 똑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든 무효표를 공개하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는 이게 무효표 같은데, 이걸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이 뽑은 선관위가 뽑은 최종적 기준이고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평의원회에서 권고조치로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학생 자치권 탄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이게 해야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얘기한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하는 자세는 틀렸습니다. 평의원회에서 논의 하는 것 자체는 논의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 간서명란 >

의장



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과를 뒤집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과정이 불투명해서, 기준 하나가 명시되지 않은 선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반장선거, 회장선거를 해도 무효표를 이렇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만장일치로 권고한다고 하셨을 때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 말씀 더 하실 분? 없으시면 박유현 학우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당선인과 이의제기자도 나가야 되겠죠?

평의원 김진우 : 네

의장 강명구 : 이홍평 의원은 여기 계셔도 됩니다.

평의원 이홍평 : 나가겠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아니, 있어야 돼요.

의장 강명구 :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평의원 윤갑희 : 그럼요.

평의원 이홍평 : 임정민 학우가 나갔던 것과 똑같은 이유라 생각을 하고...

의장 강명구 : 어떤 이유?

평의원 이홍평 : 투표에 관련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했든 안했든 했었기 때문에, 1차 투표와 2차 투표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가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조금 있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학심 심의가 있습니다. 이홍평 의원 가지마시고 대기하세요. 객관적 사실하나 확인하려 했는데 예민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권고적 의견은 수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앞장서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거든요. 거기서 비록 쓰여 있지는 않지만 무효투표 기준 이것을 제출하고 가장 객관적인 제3자가 한 번 더 열어보면 사실 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홍평 의원 퇴장)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윤갑희 : 제가 보기에 열어도 문제인 게 표 하나를 가지고 이게 과연 무효표나 유효표나를 가지고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평의원 김진우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권고안은 선거관리를 하고있는 모든 규정이, 규약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년 추가되고 빠지는 것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준이 있고 상호 합의하에 가야하니까, 거기는 분명히 권고안을 내야할 것 같고요. 과정을 보면 물론 서류는 없는 게 문제가 있지만 개표도 하고 검표도 했던 말이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참관인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다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기준을 정해서 검표를 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평의원 윤갑희 : 지금 기준을 놓고 제3자가 다시 검표를 해서 1표를 가지고 인정하느냐 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만약 이래가지고 1표가 아니고 또 다르게 뒤집어졌다고 했을 때라도 과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열어본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우리가 무슨 수사권이 있어서 검찰이라서 그런다면 이것은 당선무효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평의원 이효철 : 결과는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정인이 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궁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권고는 해줘야 진정인도 평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줬구나 하겠죠. 앞으로 차기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변경되겠구나... 지금 저 친구도 뒤집어 봐도 자기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평의원 윤갑희 : 진정인도 얘기가 다음 선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평의원 이강준 : 저는 중앙선거위원회장이 오히려 일을 더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평의원 윤갑희 : 그래서 제가 혼계한 겁니다.

평의원 이강준 : 한 표 차이로 떨어진 것인데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대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저라도 속이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선관위원회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기준을 제시해 달

< 간서명 란 >

의

장 

라. 그런데 기준이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니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지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시키고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지 여기서 저희가 더 확대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의장 강명구 : 거의 다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선거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이번 전은 1차 개표까지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평의원 김진우 : 개표하고 검표까지 했기 때문에...

의장 강명구 : 그 검표에 참관인이 다 참석했다고 했죠?

평의원 김진우 : 네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지적을 하죠.

평의원 김진우 : 네 그렇게 하죠.

평의원 이순일 : 규정이 미비한 것은 둘째 치고 지금 봐서는 진행도 상당히 그러니까 진 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선거 관리에서 좀 미진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게 결과를 재고할 정도인지, 어느 쪽이 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는 면에서는 조금 속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강준 의원이 말씀하신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문서로 된 무효표 기준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도 수긍안합니다. 다섯 개라도 받아서 이런 기준으로 했다고 선관위원장이 말했다, 앞으로는 이것을 바꾸지 말거나 바꿀 거면 아예 확실히 정해라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의장 강명구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전반적으로 규정이 미비하다. 특히 무효표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선거 관리상에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를 재고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합의하죠.

평의원 이순일 : 이번 무효표 기준은 공개하죠. 받아서...

평의원 김진우 :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음을 위해서는 명문화해라 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인이 승복할 이유는 개표를 했고 검표까지 했기 때문에 참관인 참관 하에 개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 간서명 란 >

의 장



승복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평의원 이강준 :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표 나온 것이 액션으로 가니까 다시 잘 보니까 드림으로 다시 갔고, 전체 액션표가 8표가 새로 나왔는데 드림은 5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잘하면 뒤집을 수 있거든요.

평의원 윤갑희 :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의장 강명구 :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죠.

평의원 윤갑희 :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평의원 김진우 : 선거에서도 검표 한번 하고 그것으로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평의원 이효철 :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검표 했을 거예요. 마지막 한 표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말이 나온 건데, 한 표이다보니까 다시 해보자 기준이 뭐냐 하고 따지고 이렇게 된 건데...

평의원 이순일 : 그런데 그게 명문화된 기준이 있다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텐데, 없었으니까 기준 적용에 뭔가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느꼈겠죠.

의장 강명구 :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평의원 김진우 : 상대방도 검표를 끝까지 참관했다는 게 자기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의장 강명구 : 정리하겠습니다. 규정 미비한 것 명문화해라. 선거관리 상 미비점이 많았다. 하지만 그것이 개표와 검표를 완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재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학칙을 하나 심의해야하는데, 지금 6명이에요. 7명이 되어야하는데 가서 전화를 안 받아요. 만약에 출발할 적에 7명이면 되는건지? 아니면 심의할 때 7명이어야 하는 건지?

평의원 이순일 : 심의할 때입니다.

기획팀 이수영 : 정족수가 7분이시고요. 그 중에서의 과반수가...

평의원 이순일 : 아닙니다. 정족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있고 성원할 때 정족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승권 : 심의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합니다. 심의안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매하거나 예민한 사안은 아닙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평의원 윤갑희 :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기획팀 이수영 : 지금 전화기가 꺼져있는데요.

의장 강명구 : 그럼 이렇게 하죠. 안전을 일단 설명을 듣고 지난번에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저희는 의견을 합의 하고 나머지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잠깐만요. 이러한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여기서 팀장님 설명을 듣고 저희가 토론한 다음에 저희 의견을 표명하고 나머지 정족수 모자란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묻고,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간사 김승권 : 그런데 그렇게 남기는 것 보다는 여기서 동의만 해주시면 제가 따로 의원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장 강명구 : 그런데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이 분들이 안되는 게 동의가 안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홍평 의원 아니면 혹시 교수님 중에 여기 계신분을...

평의원 윤갑희 : 설마 가기야했겠습니까? 어디 있겠죠?

의장 강명구 : 내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럼 임정민 의원이라도...

간사 김승권 : 둘 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조중열 선생 혹시...

평의원 윤갑희 : 혹시 학생회 사무실에 있나 연락 한번 해보시죠.

간사 김승권 :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팀 이수영 : 조중열 교수님도 전화 안 받으세요.

의장 강명구 : 안 받으세요? 이거 회의 자체가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새로 하려고 하면 의결정족수가 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메일 투표 하는 것에 대해서...

간사 김승권 : 그러면 두 분 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당연히 그래가지고 해서 오케이 한다고 하면 제가 취합해서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 이메일 투표합시다라고 한다하면 그게 그나마...

간사 김승권 : 저희는 서면결의도 하긴 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그게 이메일로도 가능한가요?

간사 김승권 : 네. 그것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학칙 개정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죠.

간사 김승권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이 학칙 심의(안)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강명구 : 제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학부로 남아있느냐 학과로 있느냐. 행정처리 직제가 학과 중심이다 보니까 학과장하고 주임교수 사이에서 논란도 많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학과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거의 내용은 변경 없고 이름만 바꾸고 행정조치만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간사 김승권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의장 강명구 : 이것을 저희가 통과 시켜야만 학칙에 반영되기 때문에...

평의원 이순일 : 10페이지 보니까 찬성이 압도적이네요. 30:4로.

간사 김승권 : 아, 네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일단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메일로 해서 해주시겠습니까 해서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간사 김승권 : 그대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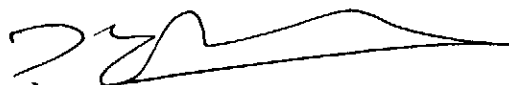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반영해서 그 다음에 주십시오.

간사 김승권 : 네 그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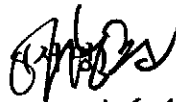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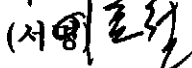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오늘 3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12년 12월 21일

의 장	강명구	
부의장	조중열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순일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이홍평	(서명)
평의원	임정민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간 사	김승권	(서명)